

태명이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e-myeong on intelligence and health

I. 서론

II. 태명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III. 태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IV. 태명 짓기

V. 태명에너지와 과학적 측정

VI. 결론

신상춘 교육학박사(성명학전공)

정창근 의학박사(명리질병전공)

도희정 대체의학박사과정수료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1, November (2017), 473-484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1.11>

(사)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태명이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신상춘¹⁾, 정창근²⁾, 도희정³⁾

The Effect of Tae-myeong on Intelligence and Health

Ssngchun Shin¹⁾, Changgun Jung²⁾, Heejung Do³⁾

요약

최근에 뱃속의 아기 이름을 짓는 태명이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부모의 유전인자보다도 태내의 환경이 지능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태아가 태명을 가지게 되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태명을 부르면서 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교를 함으로써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태명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로서 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나누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태명은 부모와 태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고, 태아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90%는 청각을 거쳐 가기 때문에 좋은 태명을 지어 불러주면 뱃속 아기의 뇌에 자극을 주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도 좋다.

셋째, 태명을 지으면 동생 맞을 준비에도 좋다. 태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뱃속에 있는 동생과 대화하도록 하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생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일 것이다.

넷째, 태내환경에서 일어나는 소리에너지 현상들을 의료기기로 심장박동, 초음파, 체온과 오라 등을 측정하여 태명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장비로 태아에게 맞는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지을 수 있다.

아기의 건강은 태내환경에서 결정되며, 평생건강을 태교가 좌우한다. 따라서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과학 장비로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선택하여 사랑이 듬뿍 담긴 태교를 해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자는 것이다.

주제어: 이름에너지, 작명, 태교, 태교신기, 태명

Abstract

Recently, Tae-myeong(Fetus Naming), who builds the baby 's name in his belly, is emerging as a new

Received (August 17, 2017), Review Result (August 31, 2017)

Accepted (September 7, 2017), Published (November 30, 2017)

¹02838 Dept. of Education, Dongbang Culture Univ., 28-60 Seongbuk-ro, Seongbuk-gu, Seoul, Korea
email: ssc58@hanmail.net

²02838 Dept. of Industrial Medicine, Hanyang Univ., 412 Graduate Hall 22-2 Majo-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jcg0121@hanmail.net

³02838 Dept. of Alternative Medicine, Jeonju Univ.,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si, Jeonlabuk-do, Korea
email: cgg0751@empas.com

wind speed. Research that the environment of the womb has more influence on intelligence than the parental genetic factor calls for the name of the baby in the womb. When a fetus has a Tae-myeong, he is recognized as a person. This is because many parents today tend to call on their mother to give birth to a child. The results of measuring the impact of Tae-myeong on raising a healthy, smart child are as follows.

First, as a creature with a personality, the fetus thinks that if the name is called every day and the conversation is done, the name can be done as it is. Thus, Tae-myeong plays an important role between parents and the fetus.

Second, it is the hearing that develops first among the five senses. Ninety percent of the energy sources supplied to the fetal brain cortex pass through the hearing, so if you call it with a good call, it stimulates the baby's brain in the stomach, which is good for the brain development and health of the fetus.

Third, it is also good to prepare for my brother if I have Tae-myeong. Calling the name of the embryo together and talking to the brother in the stomach will naturally call the name of the younger brother even after giving birth.

Fourth, we can predict the effect of Tae-myeong on the fetus by measuring the sound energy phenomena occurring in the gestational environment with the medical device such as heartbeat, ultrasound, body temperature and auras. With these scientific instruments, you can build a good name with a name energy that is right for your baby.

The health of the baby is determined by the prenatal environment, and the lifelong health is influenced by the prenatal ca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cientifically measure the effect of Tae-myeong on the fetus. By choosing a good Tae-myeong with the name energy as scientific equipment, I will raise a child who is healthy and smart by doing a preaching with lots of love.

Key words: Name-energy, Naming, Preachers, Taegyosingi, Tae-myeong

1. 서론

최근 임신 중에 뱃속의 아기 이름을 짓는 태명이 젊은 부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태명이 이름 짓기의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1]. 권상우 부부는 새롭고 신선한 존재란 의미로 태명을 루키라고 지어 화제이며, 장운정 부부는 꿈꿈이로, 유재석 부부는 메뽀, 강호동 부부는 백두산, 신동엽 부부는 푹푹이로 불렀다고 한다[2]. 이처럼 연예인 2세들의 태명이 공개되면서 태명 짓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명 붐으로 울산시와 서울 구로구는 2012년, 안동시는 2017년 6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을 발행하면서 뒷면에 태명 등의 신상정보를 기재한다. 태명은 이름의 기능 외에도 부모로 하여금 아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 수단, 친밀감과 유대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1]. 태명은 태아에게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태교에도 도움이 되고, 임신부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행복감을 높여 준다. 이처럼 태명은 부모와 태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이 동식물에게 관심과 사랑의 감정만을 베풀어도 성장이나 결실에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이름에도 에너지가 있어서 그 영향력은 더 클 것이다[3]. 이와 같은 미약에너지를 과학 장비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원리로 이름이나 태명의 파동에너지인 이름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의 이름이 자존감, 직업, 학업성적, 정신질환, 스트레스, 건강과 성공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으나, 태명이 태아의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태

명 연구는 태명 짓기의 실태[1], 태명을 만들어라[4], 이름으로 태교한다[2], 태명 짓기[5], 태명 1000 가지[6], 태명사이트와 태명카페 등이 있다. 따라서 임신 중에 태교의 중요성과 태명이 태아의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어떻게 태명이 짓는 것이 좋은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태명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태교는 한 생명의 잉태를 매우 중대하고 인격적이고 교육적인 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한다. 인간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교육되어야 세상 밖으로 나와서도 바른 인간 형성의 기초가 되어 부모의 돌봄으로 성장해 갈 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다[7]. 태아의 뇌 발달은 자궁 환경에 따라 인성, 기질, 성향 등이 바탕이 되며, 태아의 뇌 발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향후 아이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폭력,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8]. 태교는 한 개인의 존재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데 큰 기둥의 역할을 한다[9]. 태교신기에 스승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10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다고 하였다.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며, 태교의 목적은 올바른 인격완성에 있다.

그동안 똑똑한 부모에게서 똑똑한 자녀가 태어나거나, 지능은 부모의 유전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델빈 박사팀은 임신 중에 태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궁의 환경이 지능에 더 영향을 미치며, 자궁 내의 영양, 산소의 공급과 산모의 정서 같은 환경이 지능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궁 내의 환경이 지능지수의 52%를 결정한다[10]고 한다. 이후 과학자들은 미신이나 관습 정도로 여겨온 태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11]. 부모의 유전인자(48%)보다 자궁 내의 환경(52%)이 지능지수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태명 붙을 일으켰으며, 뱃속에 있는 태아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태담 태교를 한 아기들은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와 관련된 뇌 세포가 증가하듯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 습득과 사회성, 운동감각, 신경 발달이 뛰어나다고 한다. 따라서 태교는 태명 짓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태명과 유사한 사람의 이름을 예로 들면, 자기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해 자기수용이 낮았으며[12], 12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름에 대한 선호도와 자존감의 관계를 조사하였더니, 이름선호도가 높을수록 자존감 척도가 높았으며[13],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학생들은 매력적이지 않은 이름을 가진 학생들보다 성공할거라는 기대감이 높았다[14]. 또한 온라인 데이트에서 부정적인 이름 참가자가 더 방치되었다. 이러한 방치는 부정적인 이름이 자존감 저하, 흡연빈도 증가와 교육을 저해하였다[15]. 사람이 이름의 선호도와 매력도에 따라 자존감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다르듯이, 태아도 태명의 선호도나 매력도의 정도가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태아가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다[16]. 태아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90%는 청각을 거쳐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7]. 임신 5개월에는 청각 등의 오감이 발달하여 태아의 두뇌 발달에 청각이 차지하는 부분은 무려 90%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청각적으로 태아를 부르는 태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태아가 6개월부터는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궁안의 세계도 다양한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17], 엄마의 스트레스로 불안한 심장박동 소리는 태아에게 세상은 무서우며 힘들다고 느끼게 한다[18]. 또 다른 증거는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은 태아의 경우 IQ가 평균에 비해 10포인트 낮았다. 태아에게 어머니의 스트레스는 지능지수 저하를 비롯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 [19]. 그러므로 임신 중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흥분하면 자궁이 수축하여 태아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엄마의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태교란 임신부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여 편안한 태내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임신 7개월이 되면 자궁 밖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소리가 생긴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는 큰 소리는 엄마의 감정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태아가 가장 싫어한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태아와 안정적인 정서 유대를 위해 태명을 부르면서 더 많은 태담 태교를 하면, 태아의 뇌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최근에는 좋은 태명이 아이들의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Ⅲ. 태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태내의 환경적 요인이 아주 중요하다는 연구[20]와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육아법이 더 전인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태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즉, 영양과 산소, 풍부한 환경에서 자란 태아의 지능지수가 더 높고, 더 건강하고, 발달이 빠르다고 한다. 뱃속의 태아가 커갈수록 청각이 발달하여 청각적 환경은 아기의 뇌 발달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태아의 청각적 환경인 태명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엄마는 똑똑하고 건강한 아기를 만들려고 태담 태교를 하면서 태아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 없이 부르기 때문이다. 태명은 엄마 입장에서는 부르기 좋아야 하지만 태아에게도 듣기 좋고, 편안해야 한다. 왜냐하면 태아의 태명이나 사람의 이름은 파동에너지가 있어서 신체와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이름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료기기나 과학 장비로 측정해 보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3]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이름은 건강과 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버드대학교 졸업반 남학생을 대상으로 이름과 인생에 미치는 결과물을 조사하였더니, 독특한 이름의 학생들은 평범한 이름의 학생들보다 자퇴 또는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21]. 또한 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독특한 이름의 여학생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여학생보다 신경성 경향성이 높았으며[22], 아동심리치료 클리닉에서 1,682명의 아동 중에서 독특한 이름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정서적 장애를 더 많이 보였다[23].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독특한 이름을 가진 남성이 보통 이름의 남성보다는 정신병의 빈도율이 높았다[24]. 또한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개명전보다 개명 후에 낮아 졌을[25] 뿐만 아니라 이름이 얼굴의 모습까지도 바꾼다는 '얼굴 이름 일치 효과'도 발표되었다[26].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의 이름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독특한 것에 대해서 정서적 스트레스와 신경증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태명도 이

름이다. 태아의 태명은 청각적 영향력이 성인보다 더 크다. 따라서 태명은 성인의 이름보다도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이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태명으로 지어야 한다.

많은 부모가 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교를 함으로써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아기의 건강은 태내환경에서 결정되며, 평생건강을 태교가 좌우한다. 따라서 좋은 태명을 가지고 사랑이 듬뿍 담긴 태담 태교를 해서 건강하고 성공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IV. 태명 짓기

아기 첫 이름인 태명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부모의 바람이나 좋아하는 단어를 붙이면 된다. 부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부모의 이름을 따서 지어도 된다. 쌍둥이 태명은 두 개의 이름을 짓되 하나로 통합해서 부르면 좋다. 알콩이와 달콩이를 알콩달콩이로, 아름이와 다운이를 아름다운이로, 대한이와 민국이를 대한민국이로 부르면 좋을 것이다. 태명은 반복되거나 된소리가 나는 단어가 좋다. 예를 들면, 든든이 보다 튼튼이와 같은 태명에 아기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태명을 지으면 동생 맞을 준비에도 좋다. 혼자 독차지하던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거나 혹은 동생과 함께 나누어야 할 때를 위해서, 태아의 이름을 지어서 함께 부르면서 뱃속에 있는 동생과 대화하도록 하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생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일 것이다[4].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는 태교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청각을 자극하는 좋은 태교방법이 바로 태담 태교이다. 태아와 대화를 나누는 태담을 하려면 아기를 부르는 태명이 필요하다. 태명은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므로 뇌 발달에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아기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 그래서 태명 짓기 10계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태명 10계명

- 1)태명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으며, 이름에너지가 있는 태명으로 짓는다.
- 2)태명은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되면, 빠른 시일에 짓는 것이 좋다.
- 3)태몽을 꾸 경우, 태몽과 연관된 태명을 짓는 것도 좋다.
- 4)태명은 밝고, 희망차고, 긍정적인 이름으로 짓는다.
- 5)태명은 성별의 구분 없이 된소리로 짓는 것이 좋다.
- 6)태명 자체가 태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짓는다.
- 7)태명을 아기에 대한 애정 어린 바람과 염원을 반영한다.
- 8)태명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를 넣어서 짓는다.
- 9)태명은 소리가 아기 두뇌로 전달될 때 펄스로 잘 바뀌는 소리로 짓는다.
- 10)태명은 아기의 심장박동이나 초음파 등에 활발하게 반응하는 이름으로 짓는다.

따라서 태명 짓기 10가지를 참고하여 태명을 지으면 태아에게 좋을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는 배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배속으로 전달되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기억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태아는 배속에서 부모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아기가 알아듣기 쉽고, 편안하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 좋은 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태아의 심장박동이나 오라, 초음파 등을 측정하였을 때, 태아가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태명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V. 태명에너지와 과학적 측정

여러 명의 임신부로부터 얻은 심장박동과 호흡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주었더니, 태아는 자신의 어머니가 녹음한 소리에만 심장박동이 빨라졌다고 한다. 이는 출생 후에 우는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 울음을 멈추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태아 시절에 들었던 어머니의 심장고동소리를 듣고 편안함을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아버지의 음성이 어머니 목소리보다 태아에게 잘 전달된다. 왜냐하면 외부의 소리는 어머니의 복벽과 양수를 통과하면서 약해졌으나 남성의 음량에 비해 여성의 음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성 2.1dB, 여성 3.2dB). 이는 태아는 자궁 안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다는 의미이다[11]. 자궁의 양수도 물이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물이다. 물은 대자연의 생명력이며 에너지의 강력한 전달물질이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90%가 물이지만 젊어서는 70%, 죽을 때는 50% 정도라고 한다. 물도 사랑을 느끼고 고마움을 확인한다. 물에게 말을 들려주거나 다양한 글씨를 보여주거나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도 물이 보여주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다양한 결과를 보여준다. 사랑이나 감사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났으며, 악마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에서는 중앙이 검은 형상을 보였다[27]. 이처럼 태아는 물과 같은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소리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리에너지 현상을 의료기기로 심장박동, 초음파, 체온과 오라 등을 측정하여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란 특정인이나 사물을 부르는 호칭으로서 파동으로 전달된다. 사람의 이름은 인체의 뇌파, 혈압, 체온, 맥파, 음성 등의 다양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오장육부와 생체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와 글자의 조합이다. 이름은 소리파동을 일으켜서 에너지로 전달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름에너지라고 한다. 이름에너지는 긍정적 에너지와 부정적 에너지로 나누어진다. 이 에너지는 파동성 주파수를 통해 그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그 사람에게 잘 맞는 긍정적 에너지를 지닌 이름을 주파수 공명으로 찾을 수 있다[3]. 이와 같은 원리로 배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잘 맞는 태명을 찾을 수 있다. 참고로 [그림1]은 코미디언 팽현숙의 팽현숙과 팽수희 이름을 측정하였다[28]. 이 측정결과에서 팽현숙에게 팽현숙과 팽수희의 이름에너지는 인체에 다르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미디언 팽현숙은 팽현숙보다 팽수희가 더 잘 어울리는 좋은 이름이다.

코미디언 팽현숙의 팽현숙, 팽수희 오라



[그림 1] 팽현숙과 팽수희 이름으로 측정된 오라

[Fig. 1] Aura measured by the name of Peng Hyun-sook and Peng Su-hee

태아에게 좋은 태명은 태아의 심장박동,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거나 과학 장비로 태아에게 맞는 좋은 태명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심장박동, 뇌 발달, 건강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태명을 지어서 부모에게 불리어질수록 태아의 기가 향상되어 뇌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건강한 태아로 성장할 것이다. 임신 26일만 되어도 태아의 모습[그림2]을 갖추기 때문에 소리나 태명이 영향을 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2]의 사과처럼 나쁜 말을 들은 사과와 좋은 말을 들은 사과의 상태가 21일 후에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10개월 동안 태아가 좋아하는 태명을 불러 준 경우와 반대로 태아가 싫어하는 태명을 들려주었을 때, 각각의 태명이 태아의 지능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림3]의 태명, [그림4]의 오라, [그림5]의 오라와 맥파 등으로 태명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에서는 태명에 따른 태아의 반응으로 태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태명 3을 선택해야 하고, [그림4]에서는 오라맵으로 태아의 태명을 측정하여 태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태명 4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로 제시한 [그림5]에서는 오라와 맥파를 함께 측정된 것으로 태명 A, 태명 B보다는 태명 C가 태아에게 더 좋은 태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태명 C는 신체의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오라가 양호하고 심장의 맥파도 동시에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명 C를 선택하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 가장 좋은 태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6일된 태아 모습과 21일된 사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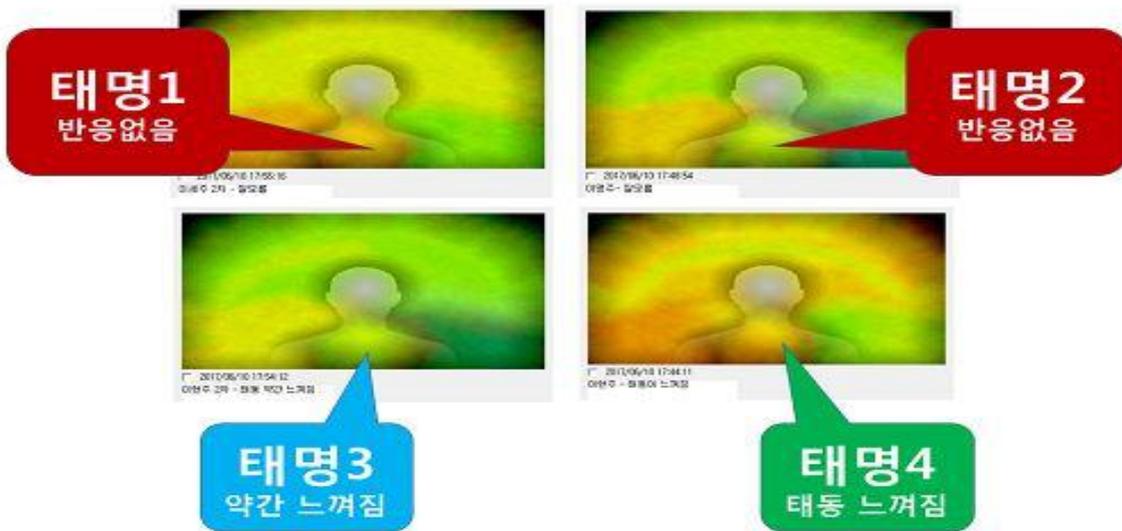
[그림 2] 26일된 태아[29]와 21일된 사과 모습[30]
 [Fig. 2] 26-day-old fetus[29] and 21-day-old apple[30]

태명에 따른 태아의 반응



[그림3] 태명에 따른 태아의 반응(두원네임컨설팅 제공)
 [Fig. 3] Fetal response to Tae-myeong(Doowon Name Consul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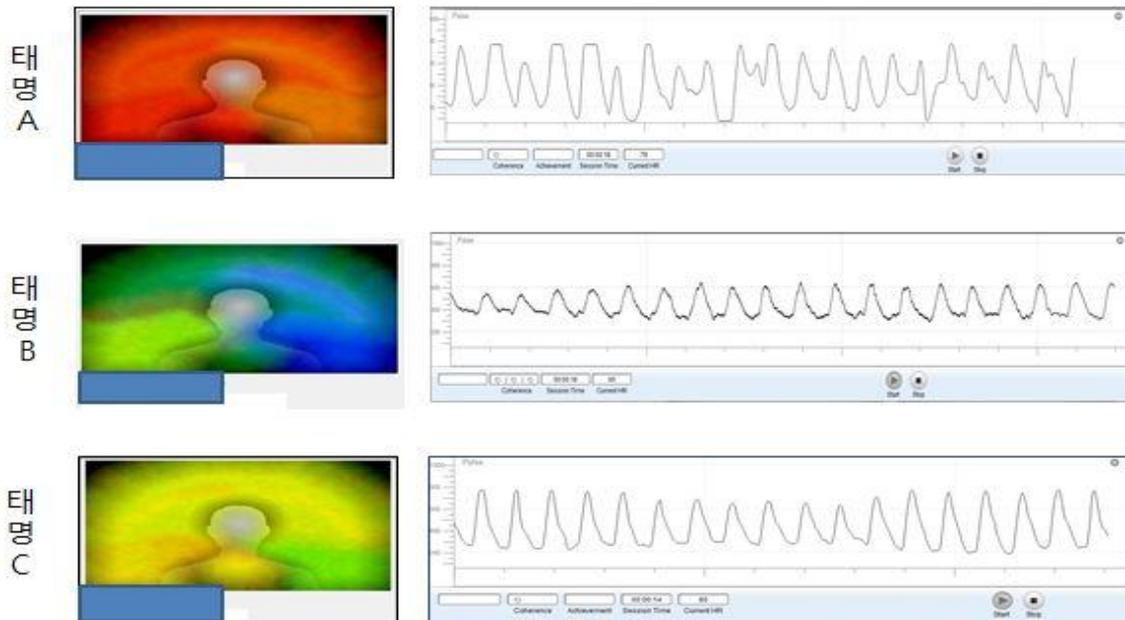
태명에 따른 태아의 반응



[그림4] 태명에 따른 태아의 오라[31]

[Fig. 4] The fetus's aura according to Tae-myong[31]

예시) 태명에 따른 태아의 오라와 맥파의 변화



[그림 5] 예시) 태명에 따른 오라와 맥파(두원네임컨설팅 제공)

[Fig. 5] Aura and Pulse following Tae-myong(Doowon Name Consulting)

VI. 결론

부모의 유전인자보다 자궁 내의 환경이 지능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태아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태교를 한 아기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언어 습득과 사회성, 운동감각, 신경 발달이 뛰어나다고 한다. 그래서 태교는 태명 짓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태명의 작명 동기는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로서 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대화를 자주 나누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좋은 태명으로 태담 태교를 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결론과 더불어 유익한 시사점이 있다.

첫째,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그냥 '아가야'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태명을 지어서 다정하게 불러주면 아기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기와 부모 사이에 유대감이 생긴다. 태명을 가지게 된 순간, 태아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태명은 부모와 태아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오감 중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고, 태아의 뇌 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의 90%는 청각을 거쳐 가기 때문에 청각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다. 제안한 태명 10계명을 참고하여 좋은 태명을 지어 불러주면 태아의 뇌 발달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태명을 지으면 동생 맞을 준비에도 좋다. 태아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뱃속에 있는 동생과 대화하도록 하면, 출산 후에도 자연스럽게 동생 이름을 부르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넷째, 태내환경에서 일어나는 소리에너지 현상들을 의료기기로 심장박동, 초음파, 체온과 오라 등을 측정하여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람의 이름은 인체의 뇌파, 혈압, 체온, 맥파, 음성 등의 다양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오장육부와 생체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리와 글자의 조합이다. 이름은 소리파동을 일으켜서 에너지로 전달되는데, 이 에너지를 이름에너지라고 한다. 아마 태명도 태아에게 같은 이름에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뇌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태아에게 좋은 태명을 태아의 심장박동이나 초음파 검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장비로 태아에게 맞는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태아의 심장박동, 뇌 발달, 건강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태명은 태아의 기가 향상되어 뇌 발달과 건강한 태아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태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태교를 함으로써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름이 당신의 얼굴모습을 바꾸듯이[26], 태명이 당신 자녀의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리나 글자가 물의 결정을 바꾸는 것처럼, 태아의 지능과 건강은 태내환경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태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명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 장비로 이름에너지가 있는 좋은 태명을 선택하여 사랑이 듬뿍 담긴 태담 태교를 하자는 것이다.

References

- [1] H. S. Kang,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Fetus Naming and Its Diffus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12) 20(2). pp. 33-61.
- [2] The Ssports Kyunghyang, I will be a child by name. (2015. 6. 15).
- [3] S. C. Shin, Study on the effect of name on self-esteem and stress before and after renaming and SSC58-Renaming Counseling Model.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3).
- [4] S. C. Shin, Editor, Name-letter effect naming method. Seoul: Jangseowon(2010). pp. 23-27.
- [5] J. D. Park, Editor, Taedam Letter. Seoul: Random House Korea(2010).
- [6] Y. H. Kim, Tae-myeong 1000 to give to my child, Seoul: Onyepub(2011).
- [7] S. J. Yang,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lial piety awareness through the prenatal education by the children's songs. Sungsan Hyo Graduate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6).
- [8] KBS Science Production Team, , "Fetal Growth Report", Seoul: Mother Books(2012).
- [9] J. H. Jang, A study on the antenatal training theory of <Taegyosingi> from the perspective of Confucian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Daedong Culture Studies*, 50(2005), 498.
- [10] Delvin, B., Daniels, M., & Roeder, K.(1997). The heritability of IQ. *Nature*, 388 (6641), 468-471.
- [11] M. I. Park, *Science Donga*, Is fetal education a science?, 1999, 10 (Vol. 166). 138-144.
- [12] Strunk, O. (1958). Attitudes Towards one's name and oneself.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14, 54-67.
- [13] Boshier, R. (1968). Self-esteem and first names in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22, 762.
- [14] Garwood, S. G., Cox, L., Kaplan, V., Wasserman, N., & Sulzer, J. L. (1980). Beauty is only "name" deep: The effect of first-name on ratings of physical attraction. *Journal Applied Social Psychology*, 10, 431-435.
- [15] Gebauer, J. E., Leary, M. R. & Neberich, W. (2012). Unfortunate First Names: effects of name-based relational devaluation and interpersonal neglect.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590-596.
- [16] J. S. Kim, The Effect of Mother-fetus Interaction Promotion Program of Talking and Tactual Stimulation on Mother-fetus Interaction and Mother-inf. Kyung Hee Graduate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2).
- [17] W. K. Cho, Translation, Helmut, H., & Folk, D., Editor, *With Music and Life*, Seoul: Kimyoungsa(2002). p. 38.
- [18] S. E. Kim, All the music in the world was made by my mother. Kyeonggi: 21C century books, 2014), pp. 23-24.

- [19] K. Y. Park, Maternal stress during pregnancy, bad influence on fetus from 17th week, *Newsis*(2007. 6. 2).
- [20] Delvin, B., Daniels, M., & Roeder, K.(1997). The heritability of IQ. *Nature*, 388 (6641), 468-471.
- [21] Savage, B. M., & Wells, F. L. (1948). A note on singularity in given name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271-272.
- [22] Houston, T. J., & Summer, F. C. (1948). Measurement of neurotic tendency in women with uncommon given names.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39, 289-292.
- [23] Ellis, A. & Beechley, R. M. (1954). Emotional disturbances in children with peculiar nam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85, 337-339.
- [24] Hartman, A. A., Nicolay, R. C., & Hurley, J. (1968). Unique personal names as a social adjustment facto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5, 107-110.
- [25] S. C. Shin, & S. J. Cho(2014). The Impact of Names upon the Stress and Self-esteem Before and After Renam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662-2670.
- [26] Zwebner, Y., Sellier, A.-L., Rosenfeld, N., Goldenberg, J., & Mayo, R. (2017, February 27). We Look Like Our Names: The Manifestation of Name Stereotypes in Facial Appea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4), 527 - 554.
- [27] E. K. Yang, Translation, M. Emoto, Editor, *Water knows the answer*. 1, 2. Seoul: Tree-planting people(2002). pp. 25, 65, 70-73.
- [28] MBN Golden Egg, *The name changes a life*. June 13, 2016(preview).
- [29] Samsung Publisher editorial department, *Pregnancy Childbirth Parenting Grandparent(26days old fetus)*, Seoul: Samsung Publisher(2017). p. 20.
- [30] MBN Golden Egg, *The name changes a life*. June 13, 2016(preview).
- [31] S. C. Shin, C. K. Jung, & H. K. Kim, *Theory of Leading Art and Actual Program(The Effect of Names on Health and Success)*, Seoul: Sympathy Plus(2017). p. 164.

교육학박사(성명학전공) 신상춘 010-4156-0574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박사(성명상담 전공)

前 목포과학대, 청운대학교 겸임교수, 예원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사
現 한국인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두원네임컨설팅부원장. Well-Life 작명상담연구소 대표

저서 및 논문

교육학의 이해,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자아발견을 위한 명심보감

건강하고 성공하는 이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름효과' 작명법,

인명용 한자 8,142字, 이름이 당신의 얼굴을 바꾼다.

사주가 운명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의 관계

개명동기와 개명 후 자기지각척도에 관한 연구

개명전후 이름이 스트레스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개명전후 이름이 자존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SSC58-개명상담모델 연구

이름이 건강과 성공에 미치는 영향, 가수의 히트곡이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름이 인성과 삶에 미치는 영향, 태명이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학박사 정창근(명리질병전공) (02) 2294-5558 010-8966-5436

청주고등학교 졸업, 육군3사관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겸임교수

대전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겸임교수

육군중령 예편, 現한양명리상담지도사연구회회장,

現한국명리육친성명학회회장, 現한국 디지털과학 명리육친작명학연구원원장,

現(사)한국동양철학연구원원장, 現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명리상담학 교수

저서 및 논문

명리학통론 I,II, 명리학 통감, 명리학 통어, 직천수 천미 평주

주역을 통한 인체질병 예측 연구, 이름이 당신의 얼굴을 바꾼다.

장기별 중증 질환 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연구

이름이 건강과 성공에 미치는 영향, 이름이 인성과 삶에 미치는 영향

태명이 지능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